

## 광주·전남 물 사용량 매년 증가... 대책은 '땀질'

**최악 가뭄... 우울한 '세계 물의 날'**  
10년새 시 14.5%·도 18.3% 늘어  
누수율 높고 낙도 제한급수 빈번  
"식수원 다양화·댐 의존도 낮춰야"



지속적인 가뭄으로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주요 식수원인 주암댐과 동북댐의 저수율이 10%대인 가운데 21일 주암호 상류 인근 물줄기가 메말라 거북등처럼 갈라져 있다. 나건호 기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이 '우울한'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맞았다. 가뭄 등에 따른 물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광주·전남 물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도민의 절수 노력과 지방정부의 물 부족 대책이 절실하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인구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10년 간 16.35% 증가했다. 지난 2012년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광주는 266 l에서 2021년 304.7 l로 14.55% 증가했고 전남도도 같은 기간 244 l에서 288.7 l로 18.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광주시민의 수는 1.88% (146만→144만), 전남도민의 수는 4.02% (190만→183만) 감소했다. 인구는 도리어 감소했는데도 물 소비량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평평 쓰는 물은 '물 곳간'을 쪼그라들게 했다. 광주·전남의 최대 식수원인 주암댐의 저수율은 홍수기를 제외하고 2012년

부터 지속적으로 하향선을 그리고 있다. 주암댐은 2012년말 75%대부터 2018년 40%대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그해 평년보다 잦은 태풍의 영향으로 저수율이 60%까지 잠깐 오르긴 했으나 이후 계속해서 감소했고 현재 저수율은 17%로 낮다.

지자체의 물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와 전남의 누수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2021년 광주시의 누수율은 5.7%(급수량 17만9933톤 중 누수량 1만189톤)로 전국 특광역시 평균 3.7%보다 높고, 전남도의 누수율은

21.6%(급수량 25만2657톤 중 누수량 5만4462톤)로 전국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전남 섬 지역의 주민들은 예나 지금이나 지속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에도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완도군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

속 제한급수를 시행한 지역일 정도로 물 부족이 심각하다. 그러나 매년 노후상수도관 교체 사업 등 '땀질식 처방'에 급급하면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인 식수원 확보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에도 주요 식수원인 주암댐·동북댐을 제외하고 취수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장기적으로 물 곳간을 다변화하고 하루 100만톤 이상을 내보내는 주암댐의 부담도 줄이는 등 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한다는 목소리다.

이종렬 물복지연구소 소장(전 한국수자원공사 처장)은 "물은 정부가 공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모든 국민은 똑같은 수량의 물과 좋은 수질의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기본권이 있는데, 전남도의 제한급수 상황을 보면 지자체의 역할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 아쉽다"며 "섬지역의 물 부족은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서 해수담수화 설비를 적극적으로 확충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전남의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수원 다양화가 급선무인데, 영산강의 보를 설치해 물 자원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주암댐의 경우 물 부담이 높은 상황이어서 여수와 광양에 투입되는 물은 해수담수화 설비를 확충해 자체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3면 최황지 기자

## '쌍둥이법 통과'로 광주 군공항특별법 기대감

TK특별법, 국토위 법안심사 통과  
강 시장 "법 동시 제정 위해 협력"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특별법(TK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쌍둥이 법'인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광주특별법)의 통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TK특별법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첫 문턱을 넘으면서 TK특별법의 3월 국회 통과도 예상된다. 이날 소위에서 특혜 소지 등의 쟁점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 대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종전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발의안의 핵심 내용도 반영됐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TK특별법 통과를 기대했지만 최인호 의원(민주당·부산 사하갑)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과 비교해 특혜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TK특별법은 군공항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되 민간공항을 전액 국비로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TK특별법이 지난달 국토부 소위 통과가 불발되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TK특별법에 포함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재정 지원을 위한 조항 등 핵심 사항은 유지하면서 최 의원 등이 문제 삼은 내용 중 공항 위계, 활주로 길이 등의 조율 가능성을 내보이며 설득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주의 군공항특별법과 연계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TK특별법과 '쌍둥이법'인 광주특별법의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통과도 기대된다. 광주특별법을 다룰 국방위 법안소위는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광주시는 TK특별법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TK특별법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광주특별법과 TK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동시 상정돼 함께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

全南日報 가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나눔테크는  
생명존중의 실천으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직장과 가정, 어디서든 발생하는 심장마비 사고!

# AED(자동심장충격기)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AED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AED 역할**  
심실세동 또는 심실빈맥으로 인해 심정지 응급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심장의 리듬을 회복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응급장비

- 품 목 명 : 저출력심장충격기
- 사용목적 : 전기 충격을 직접 혹은 흉벽에 놓인 전극을 통하여 심장에 보냄으로써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구.

**구입 및 렌탈 : (주)나눔테크 1577-8515 www.nanoomtech.co.kr**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2022-GN1-28-0016 (유효기간 25.07.28)